



3<sup>rd</sup> Week, November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16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심사, 오키나와, 국비, 재정, 증액
경제·관광	상권, 감귤, 관광객, 매출, 소비
지역·사회	디지털, 해상, 금성호, 학생, 도로

※ 분석 기간 : 11월 14일~11월 20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익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문제</li> <li>- 예산안 편성 관련 행정시 문제점</li> <li>- 상하수도 사업과 환경 분야 예산 문제</li> </ul>
	오키나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오키나와 교류 협력</li> <li>-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논의</li> <li>- 국제 세미나를 통한 협력 심화</li> </ul>
	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비 확보 노력</li> <li>- 국비 매칭 문제</li> <li>- 탐나는전 정책 활용 필요성</li> </ul>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 논란</li> <li>- 상하수도 재정 부담과 조정 문제</li> <li>- 예산안 구조와 기후환경 예산 축소</li> </ul>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 요구</li> <li>- 농업·수산 관련 예산 증액 노력</li> <li>- 의료와 복지 예산 증액</li> </ul>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상권 소비 패턴 분석</li> <li>- 관광지형 상권 활성화 방안</li> <li>- 소상공인 지원 전략 추진</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성과</li> <li>- 감귤 산업의 국제화</li> <li>- 감귤 관련 체험 프로그램</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연계 관광 이벤트</li> <li>- 일본-제주 관광 교류 확대</li> <li>- 가족 단위 여행 프로그램</li> </ul>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화장품 수출 성과</li> <li>- 관광 상권 매출 분석</li> <li>- 도내 소상공인 매출 지원</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패턴 분석</li> <li>- 친환경 소비 캠페인</li> <li>- 로컬 상품 소비 유도</li> </ul>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치안 혁신</li> <li>- 스마트 도시 구축</li> <li>-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li> </ul>
	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 사고 구조 작업</li> <li>- 해양보호구역 확대 논의</li> <li>- 불법 조업 단속 강화</li> </ul>
	금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 침몰 사고 수사</li> <li>- 선체 수색과 실종자 탐색</li> <li>- 선박 안전 대책 요구</li> </ul>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험생 긴급 지원 사례</li> <li>- 학생 인권 보호 논란</li> <li>- 환경 인식 교육 프로그램</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안전 사고 사례</li> <li>- 서귀포 도로 녹지화 논의</li> <li>-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추진</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은 디지털과 문화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소비 모델과 비즈니스 시나리오 제공,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빠른 성장과 넓은 전망.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지털 문화관광의 발전을 지원하나, 인프라 부족과 시장 홍보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
- ✓ 중국 산업정보화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구조 최적화를 목표로 다양한 투자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
- ✓ 저장 저우산(舟山)은 자유무역지구 벌크형 상품 자원 물류 허브지역 구축 승인,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도 혁신을 통해 대량 상품 무역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 텐진 자유무역지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계획. 양 지역은 자원 공유와 공동 산업 구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
- ✓ 중국 전기자동차 샤오펑(小鹏)은 AI 기반 P7+ 모델 출시로 자동차 산업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스마트 시트콤 등 다양한 혁신이 달성. AI는 자동차의 사용자 경험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
- ✓ 하이난성은 2026년까지 저공항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공용 공항 9개를 건설하고, 300개 이상의 저공항 항로를 설정하여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비행 자동차 시범 섬을 통해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
- ✓ 산시성 린펀(临汾)시는 디지털 산업과 실물 경제 융합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활 환경을 최적화 추진

- ✓ 장수성 쑤저우(苏州)는 한국 기업 170여 개를 유치하여 국제화 제조기지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배분과 글로벌 물류 허브 성장을 도모 제도 혁신과 외국 자본 유치가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
- ✓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민영 기업이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영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 체계를 강화
- ✓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탄소 배출 통계 산정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역에 지침과 방법을 제시하고, 탄소 감축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탄소 배출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

## ○ **ASEAN**

- ✓ 아세안과 프랑스는 창조 산업, 취약 지역 관리, 전력망 이니셔티브 지원 등 포함하는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 논의, 아세안-프랑스 기금을 설립하여 실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

## ○ **태국**

- ✓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홍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방안 논의, RCEP 가입을 지원하며, 홍콩 행정부는 APEC 정상회의 및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페루를 방문할 계획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는 15년 동안 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 석탄 의존도 감소,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국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
- ✓ 인도네시아는 COP29에서 독일 국영 개발은행으로부터 12억 유로 규모의 녹색 자금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과 송전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추진할 계획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2024년 말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시행할 예정,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에 투자하여 그리드 유연성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고 계획
- ✓ 말레이시아는 기니 공화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슬람 금융, 신용 등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양국은 경제 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 계획

## ○ 필리핀

- ✓ 필리핀 중앙은행은 FDI 유입이 감소하면서 투자 전략의 다변화 검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국 기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설정
- ✓ 필리핀은 마할리카 투자공사(MIC)를 통해 원자력 발전 자금을 조달하고, 2032년까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장할 계획
- ✓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해양법을 제정하고,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며 국제법 위반 주장과 반발 등 충돌
- ✓ 필리핀은 미국과 협력하여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고, 민간 원자력 개발 협력 및 '123 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2030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
- ✓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

## ○ **일본**

- ✓ 이바라키현은 국제 크루즈 선박의 증가에 따라 관광지 인지도를 높이고, 무료 셔틀버스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크루즈 선박 회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
- ✓ 임신과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
- ✓ 칸사이 전력은 호주에서 그린 수소 제조 사업을 철수하고, 수익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효율 수소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
- ✓ 쿠보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관리되지 않은 농지를 재생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촉진할 계획
- ✓ 큐슈 대학 연구팀은 저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2025년 봄 상용화를 목표로 농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
- ✓ 토요타는 수소 엔진 차량의 실용화를 위해 전동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며, 수소 탑재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기술 개발 추진
- ✓ 토요타, JERA 등 20개사는 중부 지역의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본 합의를 체결,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송전망 정비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포함된 송전망 강화 계획 수립
- ✓ 치바현 농정센터는 스마트 농업과 전기화된 온실을 통해 농업 효율성 제고,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며, 환경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의 혁신 도모

- 
- ✓ 홋카이도 전력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도입,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
  - ✓ JR 시코쿠는 지역 특산품과 문화를 홍보하는 관광 기획 프로그램 “사국의 보물”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 인지도를 높이는 협력 방안을 도입할 예정
  - ✓ 치바현 농정센터는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간 교류를 촉진하고,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여 농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사업과 환경 분야 예산 문제</li> <li>· 국비 확보 성공에도 지방비 매칭 예산 부족으로 환경 관련 사업 감축 우려</li> <li>· 상하수도 사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li> </ul>
	오키나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오키나와 교류 협력</li> <li>· 오영훈 지사, 오키나와 방문 통해 양국 지역 간 교류 성과 공유</li> <li>· 지속 가능한 정책과 경제협력을 위한 행보 강화</li> <li>-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논의</li> <li>· 오키나와 방문 후 ‘제주 청정에너지섬’ 프로젝트 강화 방안 모색</li> <li>· 재생 에너지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 국제 사례와 비교 논의</li> <li>- 국제 세미나를 통한 협력 심화</li> <li>· UNITAR 세미나에서 제주와 오키나와 청정에너지 전환 사례 비교 발표</li> <li>· 에너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과 논의</li> </ul>
	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비 확보 노력</li> <li>· 제주도와 도의회 국비확보단,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 예산 증액 요청</li> <li>·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등 11개 사업 중점 건의</li> <li>- 국비 매칭 문제</li> <li>· 상하수도 예산 국비 확보 성공에도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일부 사업 지연</li> <li>· 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논의</li> <li>- 탐나는전 정책 활용 필요성</li> <li>·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를 통해 소비 유도 및 국비 지원 가능성 확대</li> <li>·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과 분석</li> </ul>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 논란</li> <li>·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 및 용역 예산 적절성 논란 발생</li> <li>· 행정안전부 요청 자료 제출과 법적 절차 진행</li> <li>- 상하수도 재정 부담과 조정 문제</li> <li>· 국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타 부서 예산 삭감 우려 지속</li> <li>·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li> <li>- 예산안 구조와 기후환경 예산 축소</li> <li>· 상하수도 예산 확대가 기후환경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짐</li> <li>· 기후 위기 대응 예산 보완 요구</li> </ul>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 요구</li> <li>· 제주도 예산 중 경제 관련 분야 증액 홍보와 행정시 감축 현실 간 불일치 논란</li> <li>· 양 행정시 예산 확대를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필요성 제기</li> <li>- 농업·수산 관련 예산 증액 노력</li> <li>·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확대 추진</li> <li>· 농·어업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1차 산업 활성화 목표</li> <li>- 의료와 복지 예산 증액</li> <li>· 요양병원 신축 및 건강 주치의 사업 등 의료 인프라 확대 필요</li> <li>· 국비 확보를 통한 제주도민 건강 복지 증대 기대</li> </ul>

- 157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상권, 감귤, 관광객, 매출, 소비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상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상권 소비 패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형, 도심형, 주거지형 상권 소비 패턴 차이 분석. 관광객 중심 매출 비중 높음</li> <li>· 도민 소비 집중 지역 도심형 상권의 업종 특성 및 소비 시간대 조사</li> </ul> </li> <li>- 관광지형 상권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관광객 유입 매출 증대 위한 상권 맞춤형 전략 필요</li> <li>· 계절적 매출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상권 개발 요구</li> </ul> </li> <li>- 소상공인 지원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 특성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 정책 3개년 계획 발표</li> <li>· 지역 특화 상권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li> </ul> </li> </ul>
<p>감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만 명 방문과 273만 달러 규모 수출 의향서 체결 등 성과 달성</li> <li>· 감귤 기반 치유농업과 국제 치유농업포럼 개최</li> </ul> </li> <li>- 감귤 산업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난민기구에 감귤 기부 등 글로벌 이미지 제고</li> <li>· 국제 바이어 수출 상담회 통해 제주 감귤 경쟁력 확인</li> </ul> </li> <li>- 감귤 관련 체험 프로그램</li> </ul>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따기와 로봇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 도외 관광객 중심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긍정적 평가</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라산 연계 관광 이벤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과 한라산 탐방 인증 이벤트 진행으로 관광객 참여 유도</li> <li>· 내국인 관광객 대상 제주 탐방 인증 프로그램 확대 추진</li> </ul> </li> <li>- <b>일본-제주 관광 교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고베시와 스포츠 투어리즘 연계 교류 협력 강화</li> <li>· 제주와 일본 간 항공 노선 활용한 상호 관광객 유치 노력</li> </ul> </li> <li>- <b>가족 단위 여행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어린이의 날 맞이 제주 방문 가족 대상 특별 이벤트 시행</li> <li>· 아동 및 가족 관광객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li> </ul> </li> </ul>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화장품 수출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모프로프 아시아에서 39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사</li> <li>· 제주 청정 원료 기반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li> </ul> </li> <li>- <b>관광 상권 매출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관광지형 상권 매출의 계절적 변동성 분석</li> <li>· 20~30대 남성 중심의 소비 시간대별 매출 특성 파악</li> </ul> </li> <li>- <b>도내 소상공인 매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한 KB카드 소비 데이터 활용</li> <li>· 업종별 매출 차별화 정책을 통한 상권 활성화 계획</li> </ul> </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비 패턴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과 주거 지역 소비 시간대 차이 및 주요 소비층 조사</li> <li>· 지역별 소비 특징에 따른 정책 차별화 필요성 제기</li> </ul> </li> <li>- <b>친환경 소비 캠페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제로 제주’ 프로그램 통해 친환경 소비 촉진</li> <li>· 플라스틱 수거 및 자원 순환 활동에 도민과 관광객 참여 확대</li> </ul> </li> <li>- <b>로컬 상품 소비 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특산품 소비 촉진 위한 박람회와 할인 행사 개최</li> <li>·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li> </ul> </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후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 조사</li> <li>· 긴급 피난 중 선박 관리 및 불법 행위 방지 계도 활동 지속</li> </ul>
	금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성호 침몰 사고 수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선사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li> <li>· 사고 원인 및 생존자 진술 토대로 선체 복원력 상실 조사</li> </ul> </li> <li>- <b>선체 수색과 실종자 탐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해잠수사 및 해경 헬기 투입, 수심 90m 선체 내외부 수색 작업 진행</li> <li>· 선체와 연결된 그물 제거에 약 1주 소요 예상</li> </ul> </li> <li>- <b>선박 안전 대책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 사고 계기로 해양 안전 대책 강화 요구 대두</li> <li>· 어선 복원력 검증 절차와 안전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li> </ul> </li> </ul>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험생 긴급 지원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경찰, 수능 당일 긴급 차량 지원으로 수험생 지각 방지</li> <li>· 경찰 순찰차 활용, 시험장 착각 수험생 지원 등 사례 발표</li> </ul> </li> <li>- <b>학생 인권 보호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관련 도민 의견 분열과 반대 시위 지속</li> <li>· 인권헌장 내용 중 성평등 조항에 대한 민감성 논란</li> </ul> </li> <li>- <b>환경 인식 교육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내 학생 대상 친환경 캠페인 및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생들의 참여형 환경 교육으로 실천 의식 강화</li> </ul> </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로 안전 사고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에서 교량 밑으로 차량 추락, 인명 피해 없이 사고 수습</li> <li>· 도로 교통 환경 개선 필요성과 예방책 논의</li> </ul> </li> <li>- <b>서귀포 도로 녹지화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녹지 보존을 위한 2차선 도로화 요구</li> <li>· 시민 단체와 행정 간 대립 속 환경 중심 교통안 추진</li> </ul> </li> <li>- <b>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형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진행</li> <li>· 건설사의 경영난 속 공사 일정 지연과 대책 마련</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디지털과 문화관광의 유기적 융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문화관광 산업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5G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 시나리오를 제공, 이는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전략적 주력 산업으로 부상</li> <li>- 디지털 문화관광은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강력한 성장세와 넓은 전망을 보이며, 시안(西安)의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과 산시(陝西)역사박물관의 클라우드 전시 및 3D 디지털 모델링 등이 관광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li> <li>-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문화관광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지털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 지원.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부족, 제품 동질화 심화, 시장 홍보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산업정보화부, 제조업 합리적 비중 유지 투자 메커니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산업정보화부 김장룡 부장은 제조업의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메커니즘 구축과 실제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li> <li>-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산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의 운영과 감독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li> <li>- 이를 통해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국가 차원의 금융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 저우산(舟山), 벌크형 상품 투자 무역 자유화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성 저우산(舟山)의 자유무역지구 벌크형 상품 자원 물류</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허브지역 구축 계획이 공식 승인. 이는 2017년 이후 제도 혁신과 유가 전 산업체인 구축을 통해 벌크형 상품 무역의 자유화 및 편의화 지속 추진

- 현지에서는 정제유 통합 기지를 구축하고,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에너지 보장 기지를 형성하는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를 발전시켜 국내외 수요 충족 가능
- 저우산(舟山)은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국제 고표준 무역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벌크형 상품 자원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

### ○ 텐진 자유무역지구,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협력 강화

- 텐진 자유무역지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 이는 해양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료, 항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이는 시범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계획
- 앞으로도 양 지역은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자원 공유와 산업 공동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예정

### ○ 인공지능, 중국 자동차 산업 가속화 촉진

- 중국 전기차 샤오펑(小鹏) P7+ 모델 출시로 AI 자동차의 가능성을 선보임. 이는 세계 최초의 AI 자동차로, 출시 당일 3만 건 이상의 주문이 달성
- AI는 전 산업체인 가치 재구성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자 경험을 혁신함. 샤오펑은 글로벌 AI 자동차 회사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며, AI 기술을 통한 제품 차별화 추구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 AI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스마트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제조 공정에서도 AI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을 추진 가능

### ○ 하이난, 저공항 경제 발전 계획 발표

- 하이난성은 2026년까지 9개의 공용 공항을 건설하고, 300개 이상의 저공항 항로를 설정하여 저공항 경제의 총산출액을 300억 위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현재 하이난성은 200여 개의 통용 항공 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관광, 스포츠, 의료 구조, 지리 탐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 하이난성은 추가적으로 비행 자동차 시범 섬을 구축하여,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

### ○ 산시 린펀(临汾), 디지털 산업 발전 가속화로 녹색 저탄소 전환 촉진

- 산시성 린펀시(临汾市)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을 통해 도시의 고품질 발전과 전방위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 주요 디지털 산업 단지를 구축하고,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 추진
- 린펀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2023년 상반기 대비 디지털 경제 산출액이 두 배로 증가함. 이는 디지털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
- 디지털 거버넌스도 확장되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스마트 관광, 교통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추진

### ○ 장수(江苏), 국제화 제조기지 조성 위해 한국 기업 유치

- 장수성 쑤저우(苏州) 경제개발구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 자본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화 제조기지를 조성
- 현대 및 기아 자동차, SK, 모비스 등 170여 개의 한국 자본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촉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정부는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 혁신과 일류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 자본의 유치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li> </ul>
<b>중국</b>	<p>○ <b>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민영 기업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 참여 지원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민영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을 개선함. 민간 투자, 공정한 진입, 금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민영 기업이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발표</li> <li>- 또한, 민영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성, 시, 현 단위의 소통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함. 6차례의 민영 기업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민영 기업의 문제 요청 1234건 중 696건을 해결</li> <li>-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민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 정책을 개선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민영 경제 지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li> </ul> <p>○ <b>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탄소 배출 통계 산정 체계 조기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탄소 배출 통계 산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작업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함. 각 지역에 탄소 배출 산정 작업 지침과 방법 가이드를 발표하도록 추진할 예정</li> <li>- 이는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제도를 추진하고, 탄소 감축 정책을 실행하며, 국제 협상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 다섯 가지 산정 시나리오(지역, 산업, 기업, 프로젝트, 제품)에 맞춰 구체적인 작업 과제 제시</li> <li>-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지역, 산업,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프랑스와 개발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과 프랑스는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 논의. 이 협력에는 창조 산업, 취약 지역 관리, 인도적 지원, 아세안 전력망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li> <li>- 프랑스는 아세안-프랑스 기금을 설립하여 2022-2026년 아세안과의 실천 협력 지역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약속</li> <li>- 양측은 아세안 회원국, 사무국,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 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li> </ul> </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인도네시아, 홍콩과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상무부장은 태국 상무부장관 피차이 나립타판과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 부디 산토소를 만나 협력 방안 논의.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홍콩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홍콩은 이번 회담을 통해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RCEP 가입 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li> <li>- 홍콩 행정부장관 존 리 카치우는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페루를 방문할 예정이며, RCEP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li> </ul> </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15개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향후 15년간 75 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기회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li> <li>- 이 계획에는 태양광, 수력, 지열, 원자력 등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력 용량 약 90GW 중 50% 이상을 석탄에</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p>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15% 미만. 석탄 발전 관련 보조금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p>
	<p>○ 인도네시아, 독일로부터 12억 유로 규모 녹색 자금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는 COP29에서 독일 국영 개발은행 크레디탄스탈트 파워더라우프바우(KfW)로부터 12억 유로(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녹색 자금을 확보</li> <li>- 이는 녹색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자급자족 전환 지원</li> <li>- 인도네시아 국영 인프라 기업 PT PLN과 KfW는 녹색 발전소와 연결되는 송전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li> <li>- 이는 향후 1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약 75%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ul>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2024년 말 싱가포르 대상 신재생에너지 경매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부총리 파딜라 유소프는 2024년 말까지 싱가포르의 에너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실시할 계획. 이는 역내 전력망 통합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말레이시아는 석탄 의존도를 감축하고, 스마트 그리드, 전력 시스템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투자하여 2035년까지 그리드 유연성을 약 20% 제고할 계획</li> <li>-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을 기반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함. 현재는 28% 수준</li> </ul>
	<p>○ 말레이시아, 기니 공화국과 기술 협력 및 시장 접근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차관 리우 친 통은 말레이시아와 기니 간의 기술 지원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 이는 이슬람</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금융, 하지 관리, 신용 등급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가 기니에 전문 지식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니는 2024~2029년 국가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녹색 경제 촉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적 자본 개발, 혁신 육성을 목표로 설정</li> <li>- 또한, 아세안-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간 경제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양국은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말레이시아는 기니 내 입지 강화하는 목표로 설정</li> </ul>
<b>필리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필리핀 중앙은행, FDI 감소 속 투자 전략 검토 촉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4년 8월 기준 FDI 순유입액이 약 8억 1,3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로 약 14.5% 감소. 이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각각 36%와 29% 감소한 수치</li> <li>- 경제학자들은 투자자 다변화 및 투자 분야 확대를 통해 FDI 유치를 증대할 것을 제안. 특히, 국내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미국 기반 기업을 유치할 것을 권고</li> <li>- 필리핀은 이러한 FDI 감소가 경제 성장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미국의 잠재적인 정책 및 금리 변동이 필리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li> <li>- 그러나 일본, 중국, 한국이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빠른 GDP 성장률을 기록</li> </ul> </li> <li>○ <b>필리핀, 원자력 발전 자금 조달 방안 모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에너지부장관 라파엘 로티야는 국가 원자력 발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부 펀드인 마할리카 투자공사(MIC)에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요청</li> <li>- 필리핀은 '필리핀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2024-2050'을 기반으로 2032년까지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약 4,800 메가와트(MW)까지 확장할 계획</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기반 에너지 기구 EoS는 필리핀 원자력 과학 재단(PNSF)에 약 1억 9,200만 페소(약 4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li> <li>- 이는 필리핀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교육 강화와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정</li> </ul>
	<p>○ 필리핀, 남중국해 신규 해양법으로 중국과 분쟁 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최근 남중국해 내 자국의 영유권을 확정하는 두 법안에 서명.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해역 식별한 것으로 표명</li> <li>- 중국은 필리핀의 조치에 이어 스카보로 암초 인근 영해기선을 발표</li> <li>-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소환하며, 필리핀은 기준선 설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중국은 이는 필리핀의 새로운 해양법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며 반발</li> </ul>
	<p>○ 필리핀, 미국과 원자력 개발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사 메리케이 칼슨은 필리핀 원자력 분야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li> <li>- 미국 내 16개 원자력 공급망 관련 기업은 마닐라에서 필리핀의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모색</li> <li>- 미국과 필리핀은 민간 원자력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123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 사용 조건을 명시</li> </ul>
싱가포르	<p>○ 싱가포르, 2030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윈은 2030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목표</li> <li>- APEC 정상들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달성하기로 합의. 윈</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p>총리는 APEC이 지역 공급망,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성 등 주요 분야에서 국가 간 무역, 투자,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는 미중 관계 원활화를 기대하며, 양국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싱가포르, 12월 국민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는 21세 이상 국민 약 290만 명에게 2024년 12월 중으로 약 200 달러600 달러(약 28만 원84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li> <li>- 이는 보증 패키지(AP: Assurance Package)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현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10만 달러(약 14억 원) 이하이고,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또한 의료비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바라키현, 국제 크루즈 선박 증가로 관광지 인지도 향상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바라키현 대아이 항구는 국제 크루즈 선박의 증가로 관광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광지 연결을 강화함. 2024년도에는 국제 크루즈 선박 입항 횟수가 6척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li> <li>- 대아이와 호타치나카 항구는 국영 히타치 해변 공원, 수족관, 신사 등 주요 관광지가 반경 15킬로미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크루즈 선박 승객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li> <li>- 이바라키현은 앞으로도 크루즈 선박 수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해외 크루즈 선박 운영 회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임신 출산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및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고</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있음. 정부는 2023년에 “아이 미래 전략“을 통해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 도입을 검토 중이며, 2026년부터 자유 설정된 가격을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

- 현재 출산 비용은 의료기관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도쿄 도의 평균 비용은 약 61만 엔, 구마모토 현은 약 36만 엔으로 약 25만 엔의 차이가 존재
- 정부는 이미 출산 관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쿄도 미나토구는 출산 육아 일시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최대 31만 엔을 지원하고, 요코하마시는 24년도부터 최대 9만 엔을 지원

#### ○ 칸사이 전력, 호주 그린 수소 제조 사업에서 철수

- 칸사이 전력은 호주에서 계획했던 그린 수소 제조 사업에서 철수. 이는 제조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수익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
- 칸사이 전력은 비탄소 수소 발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 비용이 높아져 투자 회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실정
- 이에 따라 칸사이 전력은 다른 지역에서의 제조 및 조달을 검토하며, 향후 고효율 수소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

#### ○ 쿠보타, 전국에서 농업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 시행 - 버려진 농지 재생

- 쿠보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전국적으로 전개
- 2024년도 내에 교토 주변 50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 이는 전국의 관리되지 않은 농지를 활용하여 식량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촉진
- 버려진 농지는 25만 헥타르에 이르며, 쿠보타는 이러한 농지를 재생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함. 태양광 패널은 농작물의 일조량을 충분히 보장하며, 농업 활동과 전력 생산을 동시 진행 가능

- 쿠보타는 농기계 판매 및 유지보수, 효율적인 수확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전국의 농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의 요구 발굴
-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운영 시작 후 사업의 흑자를 유지하며 수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

### ○ 큐슈 대학 발, 저농약·비료로 고수율의 신기술 개발

- 큐슈 대학 연구팀 SACMOTs는 저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도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 이 기술은 환경 오염 위험을 줄이고, 식량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
- 주요 기술은 식물 자체에 농약 및 비료 흡수 특성을 부여하고, 유효 성분의 결합을 돕는 미세 입자를 개발. 이를 통해 농작물의 기공 수를 증가시키고, 유효 성분의 흡수 효율을 제고
- 실험 결과, 기존 농약 사용량의 1/10으로도 유사한 제초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유효 성분 도입 효율이 10배 증가한 것임. 이 기술은 2025년 봄에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 ○ 토요타, 수소 엔진 차량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 액화 및 초전도 기술 도입

- 토요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차량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전동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제품으로 개발
- 이 차량은 기존 엔진 차량보다 약 25% 긴 주행 거리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가솔린 엔진 차량의 주행 거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토요타는 수소의 액화 기술과 초전도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 탑재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초전도 기술은 전기 저항을 없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액화 수소는 저장 공간을 줄여 더 많은 수소를 탑재 가능

### ○ **토요타·JERA 등 20개사, 중부 지역의 수소 공급망 추진에 기본 합의**

- 중부 지역 수소·암모니아 사회 구현 추진 회의는 수소 및 암모니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토요타, JERA, 일본제철, 산토리 홀딩스 등 20개사가 기본 합의서를 체결
- 이는 정부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 전환 채권을 활용한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
- 주요 사업으로는 JERA가 운영하는 비에난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이 포함. 암모니아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CO2 배출량을 감소 추진 가능

### ○ **홋카이도 및 삿포로시, 송전망 정비 '국가 프로젝트' 추진**

-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송전망 정비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함.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임.
-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GX2040 비전” 수립 과정에서 홋카이도의 역할과 필요한 정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함. 이는 데이터 센터 등 산업의 집적을 위한 송전망 강화와 자금 조달 지원을 포함함.
- 정부는 이미 몇몇 전력 회사에 송전망 정비를 촉구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전력망도 송전망 정비 계획을 수립 중임.

### ○ **치바현 농정센터, 지휘 기능 강화로 차세대 농업 지원**

- 치바현 농정센터는 올 전기화 및 스마트 농업의 보급을 위해 기능을 강화. 10월부터는 태양광을 활용한 온실에서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으며, 보조 사업 강화와 장비 렌탈 제공 등을 통해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농가의 환경 자동 제어 시스템 도입을 촉진

- 기존 온실은 중유를 사용해 온도를 조절했으나, 전기 히트펌프를 이용해 온풍을 공급함으로써 연료 비용과 CO2 배출 감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일부 전력을 자급
-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해 온실의 온도, 습도, CO2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농작물의 생육 환경 최적화. 이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농정센터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한 스마트 농업의 실천을 촉진하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 관리 지원

### ○ 홋카이도 전력, 석탄 화력의 CO2 감축 위해 암모니아 혼소 추진

- 홋카이도 전력은 주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를 추진. 2024년도 말까지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CO2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혼소 비율을 증가시킬 예정
-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연소시켜 CO2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 초전도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 이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 홋카이도 전력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도입할 계획

### ○ JR 시코쿠, 관광 기획으로 지역 '보물' 발굴 및 협력 강화

- JR 시코쿠는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관광 기획 프로그램 “사국의 보물“을 12월에 100회를 맞이함. 이 프로그램은 학생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품 및 문화를 홍보
- 이번 프로그램은 고치현의 전통 채소 재배지 견학, 시노토카와 노 신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지역의 문화와 특산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JR 시코쿠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여 지역의 음식물 등을 홍보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도입함.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지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

### ○ 치바현, “서드 플레이스“ 확충 - 관광 및 지역 진흥

- 치바현의 농정센터는 가정이나 직장 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있음. 시 관광 협회는 장소와 운영자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지역 기업은 직원들의 지역 교류 촉진
- 예를 들어, 시립 공원 “락쥬엔“ 인근에 위치한 사설 도서관 “아히루 도서관“은 오너에게 책장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이는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 치바현 농정센터는 올 전기화된 온실에서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 관리를 지원
- 이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